

“외국인 신장 제한, 합리적인 해결책 찾겠다”

(2m)

난 경영만 했던 사람…농구 잘 몰라
팬·미디어·농구인자문 협의체 구성
수렴된 의견, 이사회 거쳐 행정 반영
선진 교육시스템 도입 심판문제 개선

‘소통·협·원칙’

KBL 제9대 이정대(63) 총재가 2일 서울 신사동 KBL센터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다. KBL 회원사 중 가장 많이 우승한 순번에 따라 회장사를 맡은 현대모비스 출신의 이 신임 총재는 “프로농구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KBL이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 토대를 굳건히 다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신임 총재는 “나는 기업에서 경영만 했던 사람이다. 농구를 잘 모른다. 그래서 팬, 미디어, 농구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작은 의견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농구인 뿐 아니라 팬, 언론인, 구단 행정을 담당하는 분 등으로 별도의 자문 협의체를



KBL 제9대 이정대 신임 총재가 2일 서울 신사동 KBL센터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이 신임 총재는 추후 KBL 행정을 두고 소통·협·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사진제공 | KBL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의견이 공식 이사회를 거쳐 리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전 집행부에서 다양한 논란거리를 만 들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과 상식에 따라 필요하다면 변화를 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신임 총재는 “(외국인선수 신장제한(2m)에 대한) 기사도 봤고, 여러 분들의 얘기도 들었다.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고려해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그 밖에도 매 시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심판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화된 교육시스템 도입,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플랫폼 구축,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 등 리그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거론했다.

이 신임 총재의 임기는 3년이다. 많은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는 시간이다. 그는 “예전에 프로농구가 매우 활발했던 시대가 있다. 그 당시처럼은 아니더라도 그 시대로 다시 갈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놓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이를 취합해서 KBL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허재 호, 지옥의 강행군

월드컵 예선 치르고 온 농구대표팀

통일 농구·존스컵·AG 일정 줄줄이

남자농구대표팀이 죽음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9월까지 계속 대표팀이 운영된다.

허재 감독이 이끄는 남자농구대표팀은 1일 홍콩과의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예선 1라운드 최종전을 원정으로 치르고 2일 오후 7시 귀국했다. 대표팀은 1라운드에서 2위를 차지해 2라운드에 진출했다. 대표팀은 3일 다시 비행기에 오른다. 통일농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에 체류하며 두 차례 친선경기를 갖고, 6일 돌아온다.

통일농구 이후 짧은 휴식을 취한 대표팀은 다시 집을 꾸려야 한다. 14일부터 22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월리엄 존스컵에 참가한다. 대표팀은 이 대회를 통해 8월로 예정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대비한다. 존스컵을 마치면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을 위해 친선전수준에 임할 예정이다. 존스컵을 마치고 짧게나마 쉴 시간은 있다. 아시안게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린다.

이 일정이 끝이 아니다. 대표팀은 9월 두 차례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예선 2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9월 13일과 17일 1,2차전이 예정돼 있다. 13일은 원정경기로 C조 1위 요르단, 17일은 홈경기로 C조 3위 시리아를 상대한다. 월드컵 본선행을 위해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 경기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도 쉴 수 없는 대표팀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다시 뛰자, 한국축구 ②

한국의 2018러시아월드컵은 막을 내렸다. 목표 상은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세계최강’ 독일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기며 의미 있는 역사를 썼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여정을 완전한 실패로 규정할 수 없는 배경이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을 통해 숨탄 과제도 확인했다. 대표팀 뿐 아니라 한국축구 전체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년 뒤 성공을 위해 한국 축구의 나아갈 방향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글 쓰는 순서〉

- ① 단기성과 아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 ② 한계 뚜렷한 기본기, 유소년 & 지도자 인프라 구축
- ③ 내치 이상으로 중요한 축구 외교

태극전사들의 기본기 발전, ‘양질의 지도자 양성’ 중요

해외 연수 등 꾸준한 성장 지원책 마련
처우 개선·라이선스 교통정리도 속도
창의적 지도·진학 시스템도 투명해야

“우리 경기 봤죠? 일대일 돌파가 어려워요. 한 명을 따돌리지 못한다고.”

태극전사들의 2018러시아월드컵 경기를 현장에서 관전한 한 원로 축구인의 이야기다. 정확한 지적이었다. 대표팀은 축구의 기본인 드리블부터 버거워 했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상대 선수를 따돌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위험지역에서 어이 없이 반복하는 파울도 부족한 기본기에서 비롯됐다. 이는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대표팀이 투혼과 투지를 강조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나마 강호를 만났을 때

더 강해지는 우리만의 독특한 DNA가 없었다면 한국의 러시아월드컵은 훨씬 처참하게 끝날 뻔 했다.

기본기 장착은 축구발전을 위해 아주 오래 전부터 끊이지 않고 언급돼 온 단골손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더 강해질 수 있을지를 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 대개는 그 때 그 순간뿐이다.

더 이상 미뤄선 곤란하다. 지금부터라도 유소년과 지도자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천부적 재능을 지닌 미래의 특급 선수들이 탄생하기를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다. 좋은 선수를 안정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 ▲공정한 스카우트 ▲창의력 증진을 위한 지도법 ▲투명

한 진학 시스템 등이 필수 요건이다.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다. 특히 각급 아마추어 대회의 운영방식을 바꾸는 건 축구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물론 여기에 선행돼야 할 부분이 있다. 지도자 양성이다. 서 말 구슬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법이다. 월성부른 떡잎을 잘 선택하고 제대로 성장시키려면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전문 지도자를 뽑아 해외연수 확충 등을 통해 감독·코치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도자 처우개선은 물론, 스포츠지도사와 협회 및 아시아축구연맹(AFC) 라이선스 등 교육 프로그램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도 이뤄져야 한다.

남정환 기자 yoshike3@donga.com

스포츠도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2월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평균자책	홈런	득점	실점	승률	도루	실책
1	두산	79	53	26	0	0.671	-	1승	0.304	4.69	0.730	506	389	100	48	40
2	한화	80	48	32	0	0.600	5.5	4승	0.273	4.48	0.619	399	387	79	68	48
3	S K	77	43	33	1	0.566	8.5	3승	0.278	4.54	0.622	432	373	132	51	56
4	L G	81	44	36	1	0.550	9.5	2패	0.298	4.55	0.718	446	395	80	49	49
5	넥센	83	41	42	0	0.494	14.0	2승	0.283	4.89	0.463	447	431	89	58	56
6	K I A	76	37	39	0	0.487	14.5	1패	0.295	5.09	0.568	434	409	94	46	47
7	롯데	78	35	41	2	0.461	16.5	2패	0.285	5.17	0.475	443	454	107	31	71
8	삼성	82	35	46	1	0.432	19.0	4패	0.284	5.49	0.395	419	483	71	58	49
9	K T	79	31	47	1	0.397	21.5	2승	0.274	5.25	0.395	390	446	101	44	51
10	N C	81	28	53	0	0.346	26.0	4패	0.249	5.52	0.370	318	467	69	48	55

Before & After 7-Game

팀	24일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1일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10화
K I A	👤	👤	👤	👤	👤	👤	👤	👤	👤	👤	👤	👤	👤	NC
두산	👤	👤	👤	👤	👤	👤	👤	👤	👤	👤	👤	👤	👤	SK
롯데	👤	👤	👤	👤	👤	👤	👤	👤	👤	👤	👤	👤	👤	LG
N C	👤	👤	👤	👤	👤	👤	👤	👤	👤	👤	👤	👤	👤	LG
S K	👤	👤	👤	👤	👤	👤	👤	👤	👤	👤	👤	👤	👤	LG
L G	👤	👤	👤	👤	👤	👤	👤	👤	👤	👤	👤	👤	👤	LG
넥센	👤	👤	👤	👤	👤	👤	👤	👤	👤	👤	👤	👤	👤	LG
한화	👤	👤	👤	👤	👤	👤	👤	👤	👤	👤	👤	👤	👤	LG
삼성	👤	👤	👤	👤	👤	👤	👤	👤	👤	👤	👤	👤	👤	LG
K T	👤	👤	👤	👤	👤	👤	👤	👤	👤	👤	👤	👤	👤	LG

○=승 ●=패 □=무 * =홈경기

팀간승패-남은경기

팀	KIA	두산	롯데	NC	SK	LG	넥센	한화	삼성	KT
두산	5	5-0-6	2-0-4	5-0-3	5-0-4	4-0-5	7-0-5	0-0-5	3-0-2	6-0-5
KIA	5	5-0-1	9-0-2	5-0-2	5-0-0	5-0-6	5-0-4	8-0-3	5-0-3	
롯데	10	10	5-0-3	6-0-4	3-1-8	5-0-4	3-0-7	2-0-7	6-1-1	
NC	8	5	8	10	1-0-5	5-0-6	3-0-3	4-0-7	4-0-5	3-0-8
SK	7	9	6	10	4-0-3	4-0-2	6-0-3	6-1-4	8-0-4	
LG	7	11	4	5	9	7-0-2	4-0-8	6-0-3	5-0-2	
넥센	5	5	7	10	10	7	5-0-6	8-0-3	6-0-2	
한화	11	7	6	5	7	4	16	8	5-0-3	3-0-2
삼성	11	5	7	7	5	7	16	8	5-0-4	
KT	5	8	8	5	4	9	16	11	7	1

(승-무-패승) *팀간경기없음

메이저리그

(2월)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Y	54	27	1	클리블랜드	45	37	1	휴스턴	55	31
2	보스턴	56	29	2	미네소타	35	45	2	시애틀	54	31
3	탬파베이	42	41	3	디트로이트	37	48	3	오클랜드	46	39
4	토론토	39	44	4	시카고W	29	54	4	LAA	43	42
5	볼티모어	24	59	5	캔자스시티	25	58	5	텍사스	38	47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애들렌타	48	34	1	밀워키	48	35	1	애리조나	47	37
2	필라델피아	45	37	2	시카고C	47	35	2	LAD	44	39
3	워싱턴	42	40	3	St.루이스	42	40	3	샌프란시스코	45	40
4	뉴욕M	33	48	4	피츠버그	40	43	4	콜로라도	41	43
5	마이애미	34	51	5	신시네티	36	48	5	샌디에이고	37	49

●타격

아메리칸 리그

타 율		홀 런		타 점	
① 벅츠 (보스턴)	0.338	① 마르티네즈 (보스턴)	25	① 마르티네즈 (보스턴)	67
② 알렉산더 (휴스턴)	0.338	② 리마에즈 (클리블랜드)	24	② 웨버 (시애틀)	62
③ 세구라 (시애틀)	0.335	③ 토라웃 (LAA)	24	③ 바우어 (클리모어)	59
④ 마르티네즈 (보스턴)	0.324	④ 자지 (뉴욕)	22	④ 게리츠 (휴스턴)	56
⑤ 더피 (탬파베이)	0.321	⑤ 코루즈 (시애틀)	21	⑤ 헨카나시온 (클리블랜드)	56

내셔널 리그

타 율		홀 런		타 점	
① 제레 (신시네티)	0.332	① 아레나도 (콜로라도)	21	① 바에즈 (시카고C)	61
② 알모라 (시카고C)	0.331	② 하퍼 (워싱턴)	20	② 수아레스 (신시네티)	61
③ 마카리스 (애들렌타)	0.323	③ 아라라 (밀워키)	19	③ 스톱 (콜로라도)	59
④ 프리먼 (애들렌타)	0.315	④ 골드슈미트 (애리조나)	18	④ 아레나도 (콜로라도)	59
⑤ 크로포드 (샌프란시스코)	0.315	⑤ 데스무이트 (콜로라도)	17	⑤ 마카리스 (애들렌타)	56

●투수

아메리칸 리그

다 승		방어율		탈삼진	
① 세베리노 (뉴욕Y)	13	① 세베리노 (뉴욕Y)	1.98	① 세일 (보스턴)	161
② 볼루버 (클리블랜드)	11	② 발비디 (휴스턴)	2.12	② 홀 (신시네티)	154
③ 스텔 (애틀랜타)	11	③ 스텔 (애틀랜타)	2.24	③ 코우어 (클리블랜드)	148
④ 쇼 (토론토)	8	④ 세일 (보스턴)	2.41	④ 벅스톤 (시애틀)	145
⑤ 모튼 (휴스턴)	10	⑤ 바우어 (클리블랜드)	2.45	⑤ 발비디 (휴스턴)	144

내셔널 리그

다 승		방어율		탈삼진	
① 레스터 (시카고C)	11	① 디그로 (뉴욕M)	1.84	① 서저 (휴스턴)	165
② 서저 (워싱턴)	10	② 볼루버 (애틀랜타)	2.02	② 코빈 (뉴욕M)	134
③ 놀라 (필라델피아)	10	③ 서지 (워싱턴)	2.04	③ 디그로 (뉴욕M)	134
④ 그롤리 (샌디에고)	9	④ 레스터 (시카고C)	2.25	④ 그라이 (콜로라도)	119
⑤ 스트레튼 (샌프란시스코)	8	⑤ 세베리노 (LAD)	2.27	⑤ 레스터 (휴스턴)	118